



4면

기림 선생 작품 속 깃든 한글사랑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음 7월 18일) 제30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 '최종 확정'

올해 실시설계 후 2026년까지 준공 목표
도내 매년 38억6500만 경제적 파급효과
호남권 위기 청소년들 '디딤' 기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12일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지역이 익산시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부지 예정지

지난해부터 익산과 광주가 건립지역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과 각축을 벌인 결과 익산시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익산시 합영읍 일원에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간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도내 대학교 및 농촌진흥청, 교육지원청, 병원 등 공공기관 등과 유치·프로젝트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왔고,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의회와 합동으로 유치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치열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또한, 12일 건립지역 결정을 위한 현장 실사를 할 때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익산 현장에 참석해 정현을 익산시장과 함께 치료와 재활 공간으로서의 부지 적합성, 생태 체험 공간 및

역사문화자원 등 지역 연계 자원의 우수성, 충청·호남권 청소년들의 이용에 효과적인 위치 등 익산 유치의 타당성을 평가위원들에게 적극 피력하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도민들을 비롯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 및 시의회 의원이 원팀이 되어 노력한 것이 큰 힘이 됐다"며 "센터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남권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안정적인 회복으로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전북에 하이퍼튜브 유치가 이어 디딤센터 유치가 연이어 성공한 것이 전북도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센터 유치로 입소 청소년들에게는 휴식, 치료, 삶의 전환 새로운 출발을 부모에게는 가족과 교류, 무너진 관계 재형성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센터 건립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로 도내에 매년 38억6,500만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약 3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을 위해 금년에 실시할 예정인 8억8,000만 원의 편성을 했고 2026년까지 국비 200억 원을 들여 상담실, 심리검사실, 직업교육실,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치료, 교육, 자립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기자·익산=이재훈 기자



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2일 전북독립운동 추념탑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② 우범기 전주시장이 15일 전북독립운동 추념탑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제77주년 광복절 순국선열의 뜻 되새기다

김관영 도지사, 전북독립운동 추념탑서 참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15 기념행사 대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북독립운동 추념탑에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강안 광복회전북지부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등이 참석해, 현화 및 분향, 묵념, 보훈누리공원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8·15 기념행사를 대신해 전북독립운동추념탑 참배를 한 것이다. 더불어 완공을 앞둔 보훈누리공원이 전북도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광복절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기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국립 익산 치유의 숲, 12월 본격 착공

서부산림청 주관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치유와 쉼을 제공할 힐링 관광지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이 오는 12월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 12일 서부지방산림청 주관으로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의 현안사항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최종 설계안을 종합 점검했다. 최종보고회는 이날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최종 수정 및 보완해 실시설계를 8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시행중인 서부지방산림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역 착수부터 총 24회에 걸쳐 '치유의 숲'과 한 방 연계방안 마련 TF팀 구성 및 인허가 협의, 국비 증액 논의 등 세부 업무협의를 조율해 실시설계 완성도 향

상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전북 최초로 '국립'으로 조성되는 익산 치유의 숲은 옹포면 옹포리 산 95번지 일대 62ha 규모로 오는 12월 공사에 착공해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75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산림치유센터와 친수공간, 야생화정원, 숲속공방, 경관·명상 특화공간, 무장애 데크 숲길 등의 주요시설이 들어선다. 치유의 숲은 햇빛, 경관, 온도,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환경요소를 이용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돕는 공간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시, 전북독립운동 추념탑서 광복절 기념 참배

우범기 시장·이병하 시의회 부의장 등 최소인원 참석

전주시는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 참배행사를 진행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2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광복을 되찾은 날인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범기 전주시장,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오인택 광복회 전주시지회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인 순국선열을 기리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기 위한 현화와 분향, 묵념 등을 진행했으며, 보훈누리공원 조성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훈누리공원은 덕진구 송천동 235-6 일원에 호국·보훈 역사를 기리고 보훈문화 정착을 위한 공원 및 체험·전시공간을 조성 중이며, 2022년 12월 준공예정이다. 한편, 군산·익산·완주·고창 등 도내 곳곳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김재훈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 캠페인